



**일본 마쓰시다, 물류 합리화 박차
거점 40%로 축소, 소매점 운반체제 개선**

마쓰시다전기산업은 가을부터 가전, 주택설비기기, 전자자재 등 3개부문 물류거점을 통합시켜 현재 전국 103개 물류거점을 내년에 40개소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공장에서 關東과 關西지역의 2대 물류거점, 여기에서 소규모 물류거점을 통해 소매점으로 운반하고 있는 종래의 2단계 체제를 공장에서 1개의 물류거점만을 통하게 하는 1단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비절감효과는 연간 수십억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전, 주택설비기기, 전자자재 등 3개 부문의 매출액은 마쓰시다 전체 매출액의 약 40%를 점하고 있으며, 이번 물류거점의 통합은 치열한 가격경쟁하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마쓰시다측은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부문이 각 지방자치체별로 갖고 있는 독자적인 국내물류거점은 하나의 통일거점으로 전환하게 된다.

마쓰시다는 이미 95년에 시범적으로 규슈지방에 5개소였던 제품물류거점을 후쿠오카현의 1개소로 통합시켰고, 계열 대리점으로서의 배달도



1일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또 지난 4월에는 그룹기업과 하청기업이 협력해 부품과 자재를 함께 운송하는 등 운송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폐쇄되는 거점과 각 지역의 업체간 협력을 통한 공동운송 등은 앞으로 제조를 담당하는 각 사업부와 영업본부, 물류부문이 협의해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마쓰시타는 주택설비 판매점과 전국에 2만개가 넘는 계열 가전제품 대리점을 판매의 주축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정교한 물류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저가격 및 대량판매를 강점으로 하는 가전양판점과 대형 슈퍼체인과의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 연간 물류비용도 500억엔에 달하고 있어 종래의 기종력 강화에서 물류경비의 삭감으로 업체의 관심사가 바뀌고 있다.

위에 열거한 3개부문 중에서는 단연 가전부문의 물류비용이 마쓰시타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 돼 왔으며, 가전부문의 물류거점 및 배달시스템 개선에 주택설비기기와 전기자재 부문이 갖고 있는 물류거점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전부문은 메이커 직계의 대리점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양판점의 판매 비중이 높고 대형 슈퍼마켓체인의 판매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들 대형 경우 독자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메이커와 직거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슈퍼체인의 경우도 최근에 JUSCO가 구미로부터 가전제품을 개발, 수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수입품 취급비율을 높일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마쓰시타로서도 경비절감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하는 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계에 달한 생산원가절감보다 물류비용절감이 최선이라고 본 것이다. 일본 최대의 가전메이커인 마쓰시타의 이번 방침은 여타 업체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가전업계는 한차례 물류체제 변화바람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 펄프가격 인상될 듯
加, 10월부터 톤당 40~50\$ 인상

캐나다의 주요 펄프생산업체들은 10월 1일부로 펄프가격을 50달러 이상 인상했다.

캐나다 주요 펄프생산업체인 하맥퍼시픽사와 캔퍼시는 표백화학펄프의 가격을 각각 580달러에서 630달러, 560달러에서 620달러로 인상기로 결정했다.

펄프가격은 지난해 10월에 t당 1천달러를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인 후 계속 하락, 520달러까지 하락한 후 지난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으나 많은 펄프생산업체들이 급년 상반기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펄프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NORSCAN국가라 불리는 북아메리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펄프생산업체들은 펄프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량을 약 120만 t감축키로 결정했고 즉시 캐나다 측은 펄프가격 인상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수입업체들로부터 이러한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축이 지난해와 같은 펄프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노바스코사은행의 간부인 모어씨는 "이미 수입업자들은 펄프가격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전에 주문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펄프가격은 좀더 상승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세계 주요 펄프생산공장들이 지난해 펄프가격 급등으로 생산량을 증가시켜 재고량이 늘어나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NORSCAN 국가들은 지난해 가격급등후 생산량을 증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당 미국은 580달러, 북유럽은 550달러, 일본 및 한국의 경우에는 560달러에 각각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95년 표백화학펄프 총수입량 50만 4,424t, 총금액 4억 188만 3천달러중 캐나다에서 25만8,967t, 2억865만1천달러를 수입하고 있어 캐나다로 부터의 표백화학펄프 수입이 총 펄프수입의 5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바이 수입식품류 아랍어 라벨부착
내년 7월부터 집중단속기로**

두바이 정부는 모든 수입 식품류에 부착되는 라벨링을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토록 하고 97년 7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식품류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도 식품류의 라벨링을 아랍어로 표기토록 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써 상당부분의 수입식품류가 아랍

어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어 표기가 의무화되는 라벨링의 내용은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원산지, 내용물 등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바이 당국자는 표준표기 내용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초콜릿, 육류, 낙농제품 등 아랍어 라벨링이 잘 되어 있는 편이나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구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의 라벨은 아랍어 표기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품의 성분표시는 아랍어 표기를 한 제품도 제조년월일과 유효기간은 아라비아 숫자로 처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품류 수출업체의 주의가 촉구된다.

한국의 L제과 제품을 취급하면서 재수출용 포함 연간 약 400만달러 상당의 과자류를 수입하고 있는 현지 Aal Mir Trading Co., LLC의 B. S. Fouladi씨에 따르면 "L제과를 포함한 한국산 식품류의 경우 대부분이 아랍어 라벨을 제대로 부착하고 있으나 신제품을 중심으로 약 10~20% 정도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日 ABS수지社, 돌 내년시황 우려
세계최대메이커 대만기미실업 공세강화로**

일본 ABS수지 메이커들은 내년도 시황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최대 ABS메이커인 대만의 奇美실업이 일본기업과의 협조노선을 전환, 내년의 對日 수



출량을 배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미실업의 대일수출 공세에 따라 가격하락 등 시황악화는 물론 ABS업계 재편 전망도 강하다.

대만의 기미실업은 연생산능력이 약 100만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ABS메이커로 비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시장 등에서 급속히 세어를 확대해 왔다.

과당경쟁이 상당기간 지속돼온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일본 메이커와의 공존 노선을 선택, 94년 가을부터 미쓰비시화학과의 제휴, 일본에서의 판매를 위탁해 왔다.

그러나 미쓰비시 화학이 10월 일본합성고무와 ABS사업 통합을 결정, 이에 따른 신화사의 일본 국내 시장점유율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25%를 대폭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기미실업과의 제휴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판매점유율을 축소키로 한 것이다.

판매제휴 관계가 일방적으로 해소된 기미실업은 기금까지의 협조노선을 전환, 연간 2만톤 이하로 억제해 왔던 대일 수출물량을 97년에는 5만톤 전후로 확대, 일본 국내의 10%전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한국산 알루미늄박 최상급 분류
필리핀시장 가격도 경쟁국중 가장 싸**

최근 3년간 필리핀의 알루미늄박 수요는 연평균 1만 3,059t에 달했다. 국내수요는 값비싼 알루미늄박으로부터 저렴한 플라스틱 포장재료로 변경되고 있으나 식품, 담배, 의약품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국내산업용 알루미늄박은 세가지가 있는데 한쪽면에 종이를 입힌 것과 종이를 대지 않은 제품, 종이를 대거나 라미네이팅되지 않은 호일상태의 제품 등이 있다.

최근 필리핀 국내수요 추세는 점점 얇은 알루미늄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 산업용 수요자들이 가장 실용적인 것이 7 μ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제조업체와 수입상들은 전체시장의 70%를 차지하는 7 μ 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포장산업에서 알루미늄박의 대체물로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향후에도 다른 재료보다 우세한 위치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약품 산업이 계속 성장일로에 있고 의약품같이 매우 정교한 산업에서는 알루미늄박 대신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핀에는 유일한 알루미늄박 공급업체인 Reynolds Philippines Corp.이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 Reynolds의 자회사로 필리핀 60%, 미국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생산능력은 95년말까지 연간 2,400t이 있으나 96년 1월 이를 연간 6,277t으로 확장했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국내 시장수요의 19%를 점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바이어의 주문사양에 따라 생산을 하고 있으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생산품은 7 μ 이다.

최근 3년간 전체공급중 81% 수입을 통해서 충당해 왔으며 연평균 수입불량은 1만759t, 수입금액은 4천만달러로 3년간 큰 변동없이 일정한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필리핀의 이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식품, 담배, 의약품 산업성장, 건축 붐으로 인한 에어컨 시스템용 수요 증가, 국내생산품에 대한 품질 불신 등이다.

특정 구매시즌은 없으며 분기단위로 구매하고 있다. 현지 제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최종 수요자는 품질상의 이유로 수입품을 찾고 있다. 필리핀산은 보통 바늘구멍에 의해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종이를 알루미늄박에 라미네이팅할 경우 잘 붙지 않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최고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나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공급업자로부터 오퍼를 받아본 후 그에 따라 협상하는 경향이 있다.

EU환경마크제도 통상마찰 '불씨'
제지분야 등 두드러져 역내업계 반발 제3국가세

EU 환경마크(Eco-Label)대상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역내외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초로 국제적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환경마크 대상에 포함된 베드리넨 티셔츠와 종이, 펄프 업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복사, 팩스 등 사무용지 분야에서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대서양 연안의 관련업계 공동으로 에코라벨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동전략까지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삼림 및 제지협회(AFPA)는 사무용지에 대한 에코라벨 제도를 EU시장에 대한 접근을 막는 불공정한 수단으로 간주해 이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

려져 EU의 자발적인 환경마크제도가 국제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우려도 낳고 있다.

유럽 제지산업연합회(CEPI)도 현재 에코라벨 제도가 많은 유럽업체에 불안을 주고 있으며, 이 제도가 환경상의 이익은 그다지 많이 거두지 못하면서도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CEPI측은 에코라벨이 비록 비강제적인 제도이긴 하나 부여기준에 제조공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금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만이 이를 획득한 후 환경친화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중소기업에 차별조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에코라벨 규정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CEPI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EU집행위원리는 CEPI측이 회원사에 에코라벨을 신청치 않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힘으로써 에코라벨에 대한 통상마찰 가능성과 함께 EU집행위와 유럽 제지업계간의 신경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라벨로 명명된 EU환경마크는 지난 92년 기본규정 발표이후 현재까지 세탁기, 화장지, 세탁세제, 페인트 및 올 7월에 발표된 사무용지에 이르기까지 총 11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용지(복사, 팩스용지 등) 및 펄프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펄프지 전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한도 : 30g Joule 이내
- ▲ 펄프 및 펄프지 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한도
- ▲ 복사용지 포장(내외부)에 에코라벨 기준 준수제품임을 표시하는 다음 문구 표시



導體 플라스틱 기술개발 활발
플라스틱의 무궁무진 응용 가능성에 기대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의 도체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플라스틱의 새로운 특성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70년대 중반까지도 플라스틱은 원자들이 안정적인 구조로 결합되어 있어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절연체로만 과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77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일부 화학자들이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을 발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연구결과가 재현되고, 이후 특정 형태의 폴리아세틸렌에 소량의 옥소를 첨가했을 때 그 전도성이 100만배 이상 증대된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플라스틱의 도체적 특성에 대한 회의가 줄어들면서 재료과학계에서는 이 발견을 획기적인 업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폴리머 소재가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가공의 용이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의 전자석적, 전자적, 광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한 소재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신소재의 응용성과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발견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이는 신소재-합성 금속이 일반 금속보다 훨씬 고가인데 반해 그 전도성이 빈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소재인 폴리머의 독특한 속성에 깊은 관심을 보인 Allied Signal, BASF, IBM, of Finland 등 기업체들이 폴리머 개발과 응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신소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가 증대되어 95년 합성금속 연차회의에서는 1,500여건에 달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처럼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신소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신소재의 성공적인 실용화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한 실용 사례로는 정전기 방지 마루바닥재, 항공장비의 전자석 보호물, 아주 느린 방전을 가진 전지, 전압의 변화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자동차 선루프용 전기크롬 디스플레이, 가스를 탐지하는 전자코(Electronic Noses) 등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는 전자기기 접합부의 납땀을 대체할 제품 개발로 IBM사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의 전도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더햄대학교가 동축케이블의 구리선을 대체할 폴리아닐린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은 반도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폴리머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특히 90년에 일어났던 2가지 획기적 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신소재의 장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하나는 프랑스 Thias 소재 분자물질연구소의 Francis Garnier가 개발한 폴리머 트랜지스터이다. 이 트랜지스터는 처리속도가 정형 실리콘보다 10만배 정도 느리다는 약점이 있으나, 뛰어난 신축성을 지니고 있다.



Garnier는 이후 폴리머의 내부 분자조직을 개량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처럼 빠른 처리속도를 요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표시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의 이동성을 상당히 증대시켰다. 그는 96년 말경에는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 전자의 이동성이 정형 실리콘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에 Garnier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했던 필립스사는 플라스틱 전자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였는데, 멀지않은 장래에 LCD, 무선주파수 동조태그나 단순한 칩카드 응용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다른 하나는 캠브리지대학교의 Richard Friend와 동료 학자들이 도체인 폴리머를 2개 전극사이에 끼워넣어 광자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한 것이다.

Friend의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된 Cambridge Display Technology사는 이 연구 개념을 응용해 97년말까지 무선전화기의 표시부와 같은 획기적인 장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 목표중 하나는 평면 TV 화면이나 두루마리 전자신문 등과 같은 가볍고 유연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의 전도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플라스틱의 무궁무진한 응용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플라스틱 신소재는 합성 금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가공의 용이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의 전자석적, 전자적, 광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의 소재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관련 산업계나 학계에서도 산학협동으로 플라스틱 신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세계의 연구개발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래의 무역환경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日 포장기계업계, 시스템에 적극 대응
생산제품 다양화와 함께 최근 업계 추세

1947년 캐러멜포장기 제조로 시작된 일본의 포장기계 생산은 91년에 세계 최대 생산액을 기록했다. 91년 생산액이 1,848억 1,400만엔, 92년에 전년대비 0.4% 증가한 1,855억 5,400만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버블경제 붕괴 및 엔고에 의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3년에는 전년대비 17.9%가 감소한 1,523억 9,300만엔까지 감소되었으나 94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종류별 생산활동을 보면 개장 내장기계의 95년 생산액은 1,270억 700만엔으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했으며 외장 하조기계의 95년도 생산액도 290억 1,500만엔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했다.

일본의 포장기계 생산업체 현황을 보면 1945년대에 10개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본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94년에는 423개사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중 전업메이커가 256개사에 이르며 나머지 167개사가 겸업으로 포장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전업메이커의 경우를 보면 100인이하의 업체



[표] 생산동향

(단위: 대, 백만엔)

연도	개장·내장기계		외장·하조기계		총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0	17,410	146,459	51,456	29,541	68,866	176,001
1991	16,777	149,611	53,203	35,203	69,980	184,814
1992	15,739	151,339	42,941	34,215	58,680	185,554
1993	13,487	124,042	36,743	28,351	50,230	152,393
1994	14,270	121,992	45,893	25,516	60,163	147,508
1995	14,879	127,007	49,561	29,015	64,440	156,022

자료: 기계통계연보

[표] 생산동향

(단위: 대, 백만엔)

연도	식품부문	화학부문	기계·전기부문	섬유·잡화부문	기타	총계
1989	58.0	15.2	6.0	3.0	17.8	100.0
1990	57.5	14.7	4.6	3.4	19.8	100.0
1991	57.9	14.0	4.2	3.2	20.7	100.0
1992	60.3	14.4	3.8	2.6	18.9	100.0
1993	61.8	13.1	2.9	2.8	19.4	100.0

자료: 일본포장기계공업회

[표] 포장기계 수입동향

(단위: 대, 천엔)

국별	1994		1995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한국	93	134,169	258	134,955
이탈리아	1,379	4,942,286	1,885	4,447,417
독일	8,869	3,895,932	16,622	2,660,748
미국	734	870,274	2,008	842,013
화란	678	851,781	828	1,215,608
스위스	353	636,424	68	427,795
총계	16,302	12,284,267	36,863	11,049,741

자료: 일본 무역월표

세를 보이고 있다.

포장기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포장기계 및 포장기계의 일본 수입실적을 보면 95년에 110억 4,900만엔으로 전년의 122억 8,400만엔 대비 10.1%가 감소했다. 이는 일본경제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9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별수입실적을 보면 95년도에 이탈리아 44억 4,700만엔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 독일 26억 6,100만엔, 화란 12억 1,600만엔, 미국 8억 4,200만엔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의 대한수입을 95년에 1억 3,500만엔 전년의 1억 3,400만엔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수량으로 보면 95년에 258대로 94년의 93대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다.

특별한 수입제한조치는 없으며 관세는 기본세율이 무세, 협정세율은 96년 12월 31일까지 2.3%, 97년 1월 1일부터 1.6%이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양자중 낮은쪽의 세율을 적용받으

는 생산기종도 한정되고 제한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의 업체는 생산기종도 다양하며 최근 포장기계 추세인 시스템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자본금별 일본포장기계 업계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수가 전체의 86.5%를 점하고 있으나 기업수에 비해 생산액은 전체의 56.4% 밖에 되지 않으며 반면 57개에 불과한 대기업은 일본 전체생산액의 43.6%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리고 91년 이후 대기업의 비중이 더욱더 확대추



로 수입관세는 무세이다.

일본의 포장기계 주요부문별 수요비중을 보면 93년에 식품부문이 61.8%로 가장 높으며 이어 화학부문 13.1%, 기계·전기부문 2.9%, 섬유·잡화부문 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澳, 포장재수거 시행령 강화 재수거율 90%이하 폐기물 처리사와 계약 맺어야

EU역내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법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달 1일부로 더 강화된 포장재수거 시행령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對오스트리아 수출품의 경우 포장재 수거가 쉽도록 돼 있는 경우에 오스트리아 수입상들로부터 더욱 환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스트리아 환경부는 가끔 무작위로 추출된 회사들에 대해 포장재 수거상황을 점검하는 정도로 폐기물 처리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해 왔다.

오스트리아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존의 제도로는 사실상 감시가 힘들고 환경부 조사를 요행히 넘기거나 폐기물 재활용회사와 결탁해 서류위조 등의 편법으로 포장재 수거의무를 우회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체들의 포장재 수거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된 포장재수거 시행령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포장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매년 1/4분기내에 전년도의 포장재 폐기처리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회사가 포장재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는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환경부는 개정된 포장재 수거시행령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데이터 뱅크를 통한 감시체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별 자료를 수집 중인데, 이 데이터 뱅크는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포장재 재수거율이 90%를 넘는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자체수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재수거율이 90%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공인의 폐기물 처리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하나뿐인 처리회사인 AR-A(Austrain Recycling Agency)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RA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수는 작년 기준으로 9,722개이며, 95년의 폐기물 부담금 수입실적은 총 26억 100만달러였다.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 제정 일·중, 독·중 표준계약서조건보다 유리

KOTRA와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구랍 12월 10일 오전 10시 북경에서 상거래관행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 제정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갖고 양국 기업간 상품교역시 표준계약서 양식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전문과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는 양국간 다양한 상품매매 계약조건들을 국제



관례에 부합되도록 일반화한 것으로, 상품별로 상이한 거래유형에 맞도록 2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계약조건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협약에 기초해 제정된 것으로서, 종래 우리 기업들이 중국측의 계약서 양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던 관행을 시행할 수 있어 양국간 상거래가 표준화·규범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과의 수출입 표준계약서는 일본과 독일이 각각 92년과 95년에 제정해 현재 사용중에 있다. 이번 한국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실무협상 과정에서 중재지 선정, 선적조건 등 분쟁 발생 소지가 큰 핵심조항에 있어 우리측 안을 관철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일본과 독일보다 유리하게 타결됐다.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 제정은 KOTRA가 지난 92년 대중국 진출활성화 대책이 하나로 정부에 건의해 이듬해 제1차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합의한 사항으로 양국은 실무회담 추진을 위해 한국의 KOTRA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협작부를 협상창구로 지정했다.

이후 양측은 각기 '한·중상사계약연구회'(한국)와 '중국대외경제무역합동조관연구회'(중국)를 구성, 94년 이래 서울과 북경에서 연례 협상을 가져왔다.

KOTRA는 우리측 유관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통상산업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 및 현대중합상사, LG상사, (주)대우, 코오롱 등 주요 중합상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상사계약연구회 실무협의회를 수차 개최해 우리측 협상안을 마련, 중국측과의 회담에 임했다.

그러나 중국측과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중재지 선정, 선적조건, 품질보증 등 상사분쟁 발생 소지가 큰 핵심조항에 관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 난항을 거듭한 끝에 구랍 5일 말에야 의견이 접근돼 가성명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KOTRA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검토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주요 중합상사 등 우리측 실무협상단과 함께 전조항에 대한 재검토 후 최종 서명문을 마련했다.

**日 스미토모 화학, 첨단분야 대한 투자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공장건설**

중국, 아세안 등 새로운 투자선의 대두에 따라 일본에 대한 투자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첨단분야에서의 대한투자를 결정, 주목을 끌고 있다.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감광성수지인 포토레지스트의 신공장 건설을 추진, 한·일 양국간의 수평적 산업 협력사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9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장의 생산능력은 연 10만갤런으로 우선 한국내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 투자계획은 종래부터의 기술제휴선인 한국의 D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제조기술은 스미토모화학이 라이선스계약에 의해 공여할 계획이다. [K]